구내소견

Ⅲ급 교합 관계를 보이며 전치부 절단교합 양상을 보 였다. 총생이 관찰되거나 예상되지 않았다. 임상 관찰 시 혀가 하방으로 위치한 것이 관찰된다.





그림 13. case 2 초진 방사선 사진

방사선 사진 분석

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상 ANB -0.6° 로 의 미약한 Ⅲ 급 부조화를 보이고 있었다. ANB 수치 상으로는 Ⅲ 급 골격 부조화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. 하지만, 장안 모의 얼굴형을 보이는 점, 상하악 전치의 경사도 (상악 순측 경사, 하악 설측 경사)를 감안하면 첫 번째 케이 스보다 골격 부조화가 더 심각 한 것으로 보인다. AB to mand. Plane의 각도가 62.5° 로 악정형 치료의 예후 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측모 방사선 사진 상에 서도 혀의 위치가 낮은 것이 관찰된다.

치료 목표 및 치료계획

상악궁 확장을 위하여 bonded RME 부착하고 facemask를 통하여 상악골의 전방이동 하악골의 후 방이동을 계획하였다. 상악골의 협착이나 총생이 관찰 되지 않았지만, 확장을 통한 A point의 전방이동을 기 대하였고, 혀의 상방이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하여 습관 개선 효과을 기대하였다.

치료경과

상악은 bonded RME 를 부착하고 일주일에 2회 3 달 동안 slow expansion을 시행하였다. Facemask 는 bonded RME를 부착하면서 바로 적용하였다. Elastic을 이용하여 첫 달만 편측당 200g을 그 이후에 는 500g 의 악정형력을 적용하였다. Face mask 적용 4개월 후에 절단교합이 개선되었다. (그림 14) 그 후에도 overcorrection을 위하여 facemask를 더 착용하였 다. 하지만, 협조도가 나빠 facemask 착용 시간이 부 족하였다.



그림 14. case 2 치료 중

치료 결과 및 고찰

치료 종료 후 positive 수평, 수직피개를 보이긴 하 나 충분하지 못했다. 치료 후 안정성을 위하여 과교정

을 하고자 했으나 협조도 부족으로 원하는 치료 목표 를 거두지 못했다. 구개 장치를 장기간 유지 시 우식증 발생 우려가 있어 1년 2개월 정도 착용 후 구내 장치를 제거하였다. (그림 15)

치료 종료 후 중첩을 보면 상악골도 전방으로 이동 하기는 했지만, 하악골의 전방이동 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. AB to mand. Plane의 각도가 62.5°로 이 후 성장에 따른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혀 를 내미는 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예후가 불량할 것이 걱정되었다. (그림 16)



그림 15. case 2 치료 종료 임상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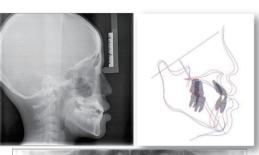




그림 16. case 2 치료 종료 방사선 사진

치료 3년 후 반대교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수 평, 수직 피개가 얕은 것을 볼 수 있다. 하악 견치 후 방에 space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혀를 내미는 습관 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구외 사진 상 안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반대교합이 발생하지 않았다. (그림 17) 중첩을 보면 하악골이 전방으로 성장하기 보 다는 하방으로 성장을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 다. (그림 18)

1차 치료 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, 정상적인 수평, 수직 피개를 형성한 것이 하악골의 전방 성장을 차단 했을 것으로 보인다. 바이트가 얕아진 것은 하악 견치 후방에 space로 미루어 혀 내미는 습관이 그 원인일 것이다. 그리고 혀 내미는 습관 특히 혀의 낮은 위치가 상하악골의 하방 성장에 기여 했을 것으로 보인다. 습 관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이다. 현재 유지 기간에는 혀에 위치에 대한 재교육 을 시행하였고 Hawley retainer를 이용하여 하악 견 치 후방의 space를 닫아 수평, 수직 피개를 더 깊게 형 성해주고 있다.



그림 17. 치료 종료 3 년 후 유지상태







그림 18. 치료 종료 3년 후 방사선 사진 및 중첩

| | Pre-Tx. | Post-Tx. | Retention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1) Skeletal A-P anal | ysis | | |
| SNA | 72.9 | 75.2 | 76.1 |
| SNB | 73.5 | 76.0 | 77.9 |
| ANB | -0.6 | -0.8 | -1.8 |
| Wits | 5.8 | 7.3 | 5.2 |
| AB to Mand. plane | 62.5 | 62 | 59.8 |
| 2) Skeletal vertical | analysis | | |
| FMA | 27.6 | 26.1 | 25.5 |
| PFH/AFH | 55.3 | 61.2 | 64.5 |
| ODI | 55.6 | 55.7 | 52.6 |
| 3) Dental analysis | | • | • |
| U1 to FH | 116.7 | 125 | 124.2 |
| IMPA | 83.9 | 81.7 | 7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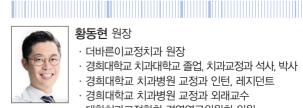
table 2 case 2 계측치

총평

반대교합은 그 자체가 골격성 III급 부조화를 야기하 는 원인이므로 발견되는 즉시 치료해야 한다. 정상적 인 수평, 수직 피개 자체가 부정교합과 잘못된 골격성 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.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 되었던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상하악골의 전후방적인 재발은 일어나지 않았다.

치료과정과 유지과정에서 악습관 개선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. 특히 혀의 위치와 호흡에 유의해야 한다. Facemask는 상악골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데, 이는 상기도에 발생하는 저항을 줄여 구호흡 개선에 효과적 이다. 상악골을 전방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facemask 가 여타 Ⅲ급 악정형 장치나 Ⅲ급 기능성 교정장치에 대해 가지는 장점이다. 상악골의 확장은 코로 들어가 는 호흡의 저항을 줄여주고 혀가 상방으로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. 습관 개선 을 위한 '형태'를 만들어 주더라도, 환자가 연조직 습 관을 개선하지 못하면 치료 예후는 나쁠 수 있다

따라서,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은 최대한 빨리 치료해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에 더해 습관 교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.



황동혀 원장

- · 더바른이교정치과 원장
- ·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교 졸업, 치과교정과 석사, 박사
- ·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인턴, 레지던트
- ·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외래교수
- · 대한치과교정학회 경영연구위원회 위원 · 한국성장기과교정연수회 OMFT 위원